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주소와 발전과제\*

金 愚 珍 (研究委員, 3705-6265)

금융구조개혁 결과 은행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역량이 현저히 개선되지 못해 은행의 발전 정도는 미흡하다. 또한 중개기능 또한 비교적 우수하지만 자금유입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지원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은행의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축소균형의 경영은 여전하며 시장집중도의 증가로 과당경쟁 소지가 잠재하고 이자이익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의 통합화 진전, 고객의 금융니즈와 정책기조의 변화 등 새로운 금융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은행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글로벌화 및 국제화 추진, 인적역량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금융구조개혁 과정에서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그룹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화, 장기화, 국제화로 요약되는 고객니즈의 변화도 일조하였다. 즉, 금융거래자들은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형 금융수요를 확대하고 해외투자까지 고려하는 등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산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주소를 위상, 중개기능, 경제 기여도, 산업구조 및 수익구조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관리, 연금서비스 등 장기 금융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본 시장 중심의 금융정책은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어 은행이 증권시장과의 연계(spillover)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금융의 통합화 진전, 고객의 금융니즈와 정책기조의 변화 등 새로운 금융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은행이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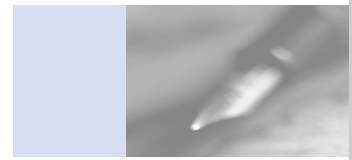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위상, 중개기능, 국민경제 기여도, 산업구조, 수익구조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통해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은행산업의 현주소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국내은행이 금융부문(자산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이르러 일본(41.3%), 호주(48.2%)와 비슷하고 미국(24%)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금융거래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은행권의 위상이 제고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GNI)을 보면 우리나라(7.71)는 선진국(영국 12.23, 일본 12.15, 미국 9.08; 2005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아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소득 대비 예금은행의 보유자산 규모는 높지 않고 자본시장 또한 성숙하지 못하다.

금융산업 내 은행권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금융부문의 역량이 현저히 개선되지 못해 은행의 발전 정도는 미흡하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은 GDP 대비 자산규모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하여 뒤지지만 가계 및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공여는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은행을 통한 중개기능 수준이 높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은행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1인당 수신규모(US\$24,244)가 낮게 나타나는 등 은행으로의 자금유입 수준이 높지 않아 중개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선진은행은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로 인해 3차 산업 중심의 여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에 비해 은행의 기업여신이



2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미식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예금은행을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 규모가 작다. 반면 일찍부터 금융 그룹이 형성되어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이나 계열(keiretsu) 형태로 은행과 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일본은 간접금융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관계형 금융을 통해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국내은행들의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 조정 수익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리스크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기업금융 규모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들어 국내 은행산업은 사상 최대실적을 계속 갱신하면서 GDP에 대한 은행산업의 이익비중(1.85%)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수익측면에서의 은행의 부가가치는 제고되고 있으나 고용규모는 축소균형에 있다. 소매금융의 경쟁력이 높은 선진은행일수록 많은 세일즈 인력을 영업에 전진 배치하여 확대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판매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면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이 개선되어 '은행의 지속 성장'에 유리하고,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은행의 시장집중도(CR3 기준으로 64.4%)는 현재 금융강국이면서 소국인 핀란드(98.3%), 네덜란드(71.4%)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형 중심의 과당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13.1%)은 주요국 은행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 선진은행들은 직원 대비 자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판매관리비용률은 높지만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의 3~4배에 달하는 부외자산(managed asset)의 운용 등을 통해 높은 비이자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즉, 해외은행들은 자본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조직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어 고비용-고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은행은 저비용-저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국내 은행산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우선 시장 중심의 금융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익측면에서의 부가가치는 제고되고 있으나, 판매인력이 부족하고 지원부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고용규모는 축소균형에 있다.

추가적인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형 중심의 과당경쟁 현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며, 경영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성장이 심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업무 및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집중도가 점차 높아지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성장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며, 시가총액이 커가는 과정에서 산업의 안정성 확보도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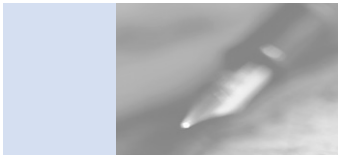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과제는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글로벌화 및 국제화 추진, 인적역량 업그레이드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과제는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글로벌화 및 국제화 추진, 인적역량 업그레이드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은행 중심 시스템과 시장 중심 시스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회사의 수평적 확장(horizontal expansion)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경제주체의 실물자산(stock)과 금융자산(cash flow)간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GDP 대비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높아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향후 자본시장의 성장은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은행들은 자본시장 관련 업무의 확장을 통하여 비이자수익 확대를 꾀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 발달로 장기금융자산의 축적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퇴직연금, 신탁 등 관련 업무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맞물려 정책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정책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그때그때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부분적으로 훼손하는 사태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 당국은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과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맞물려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현재의 전업주의(special banking) 방식 대신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방식으로서의 운영체계 이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화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내부 지향적 금융정책, 국내 금융시장의 통제와 감시를 중심으로 한 감독, 현 상태 유지(status quo)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내은행의 글로벌 차원의 현지화 또는 국제적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 즉, 국내은행과 해외 현지 금융회사의 결합을 적극 허용하고, 글로벌 또는 아시아 대형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싱가포르,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 같은 특정 시장과의 호혜적 협력도 도모해 볼 만하다. 국내 은행중심의 금융그룹들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성장여력(room for growth)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집중 육성한다면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

금융의 국제화·증권화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교차판매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이익의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완전 겸업화를 저해하는 규제체계, 매트릭스조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 부족, 밀어내기식 영업관행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적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매금융 부문의 후선(back office) 지원인력이 부족한데 지난 몇 년 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영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 진출지역마다 후선업무 지원 부서를 구축하는데, 이는 은행들이 관련 인력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 금융사고 예방 및 영업추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스(force)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이 향후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파생상품,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 금융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의 채용·경력관리·평가 및 보상체계와 유사한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핵심인력의 내부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IF**

국내은행들이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파생상품,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 영입 및 육성 등을 통해 인적역량의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